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23(2): 117~128, 2012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과 창의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윤 정 진 · 김 경 은[†*]
동명대학교 유아교육과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과[*]

Undergraduate Student's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Creativity and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Creativity

Youn, Jeong Jin · Kim, Kyoung Eun[†*]
Dept. of Early Childhlood Education, DongMyung University, Busan, Korea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Cheonan,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nner in which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and creativity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and explored the mediating role of creativity in extraversion-school adjustment and openness to experience-school adjustment relationship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58 undergraduate students from around the capital city and Pusan Greater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revealed that extraversion related positively to openness to experience, creativity and school adjustment. Openness to experience related positively to creativity and school adjustment and creativity related positively to school adjustment. Furthermore, creativity was found to mediate the effects of openness to experi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influence of openness to experience on school adjustment occurred indirectly through the facilitation of creativity. The importance of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and creativity to predict undergraduate student's school adjustment is also discussed.

Key words: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creativity, school adjustment, mediating

접수일: 2011년 12월 26일 심사일: 2012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25일
[†]**Corresponding Author:** Kim, Kyoung Eun Tel: 82-42-580-2328
e-mail: leejay48@cho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시기로 발달적인 측면에서 심리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고등학교시절까지 '대학입시'라는 커다란 목표 아래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짜인 스케줄에 따라 학교생활을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많은 자유와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다. 대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자신이 원하는 수업시간이나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한다면 동아리 활동이나 학과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시기 대학생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들은 현재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야 하고 이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기대와 관점이 달라지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비해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이처럼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생활양식을 정립해야 하고, 자신이 당면한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개인적인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만 한다(Baker & Siryk 1986; Chang 1999).

적응이란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개인과 환경 간의 조화, 즉 그 사회가 가진 규범, 질서에 부합되고 일치된 행동을 함으로써 개인이 자기의 생활을 원만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Schaffer & Schoben 1956).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혹은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Choi & Kim 2004).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Kim과 Kim(2008) 학교생활적응을 학교생활에서의 자신감과 만족도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개인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는지, 학교에서의 대인관계, 학습활동, 환경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한 대학생은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뿐 아니라 학업성취가 높다(Ladd et al. 1996). 반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학업동기, 학업성취, 학교 참여, 출석률, 학습준비, 학교 졸업 등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Spencer 1999). 이처럼 주어진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은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은 개인의 행동 및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Gonzales et al. 2001). 즉, 청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이 이 시기에 얼마나 적응을 잘 하느냐에 따라 성인기의 출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강한 대학생활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선행연구(Kim et al. 2004; Lazarus & Folkman 1984; Lee 2003)를 살펴보면, 개인의 성격 특성이 학교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추론해 볼 수 있다. 6년에 걸친 종단연구 결과 성격은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양식을 예측해주는 요인임을 입증하였다(Vollrath et al. 1995).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에서 이루어진 성격 연구들은 성격의 개인차를 기술하고자 노력했다. Fiske(1949)는 인간의 성격 차원을 3요인으로 보는 Eygenck검사와 20개 영역으로 보는 Catell의 검사를 분석하여 성격을 5가지 요인으로 제시하였고 그 후 Norman(1963)은 공식적으로 5요인 모형을 학계에 제안하였다. 5가지 성격요인의 명칭은 학자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신경증, 성실성, 호감성 등으로 구분된다(MaCrae & Costa 1997). 외향성은 대인관계의 양과 강도를 의미하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신경증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을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내고, 호감성은 개인이 타인에 대해 갖는 친화적인 태도나 성향을 의미

한다. 성격요인 중 사회성향(외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a et al. 2008; Kim et al. 2004; Lee 2003).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MaCrae & Costa 1997) 외향성은 사회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성격요인으로 볼 수 있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이 높고 이에 따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 et al. 2008; Lee 2003). 반면 수줍어하거나 경계심이 있는 아동들은 또래관계나 학교 수행에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Coplan et al. 2004; Gazelle & Ladd 2003). 경험에의 개방성도 5가지 성격요인 중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지성, 인지, 창조, 상상, 참을성, 교양 및 탐구로 구성되어 있다(Goldberg 1992). McCrae와 Costa(1997)에 따르면, 개방적인 사람은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어진 상황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성향은 새롭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성을 높이는데, 경험에의 개방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 et al. 2008).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새로운 학습, 발견, 탐색에 더욱 개방적일수록 학업성취가 높다(Lounsbury et al. 2003). 또한 신경증적인 경향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해 비효율적으로 문제에 대처하며 이로 인해 학교적응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3). 성실성 요인은 학교성적과는 유의한 상관(Ha et al. 2008; Laidra et al. 2007)이 있는 반면, 학교적응에서의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Ha et al. 2008). 마지막으로 호감성(친화성)은 학교성적이나 학교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없거나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였다(Ha et al. 2008; Lounsbury et al. 2003).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5가지 성격요인 중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신경증이 학교생활적응과 일관성 있게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향성이 높고, 경험에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성격 요인이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창의성은 새롭고(novel) 적절한(appropriate)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Barron 1988), 일상생활에서 독창적이고 융통성 있는 생각을 통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창의성을 측정함에 있어 새로움과 적절함은 핵심적인 준거로 사용된다. Runco 등(2001)은 기존의 창의적 산출물 검사가 개인의 창의적 산물을 측정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창의적 산출물 검사 시행 시 소요되는 시간적 소비와 주관적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Runco 아이디어 행동척도(Runco Ideational Behavior Scale: RIBS)를 개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모든 수준의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창의적 척도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준거가 된다. RIBS는 사고의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척도로서 개인이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능력,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능력, 아이디어를 다루는 기술 등을 반영한다(Runco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RIBS를 통해 창의성을 측정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측면에서 창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독창적이고 융통성 있는 생각을 통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대학생의 창의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은 개인과 사회에 매우 가치로운 것이다. 창의성은 개인의 생산성, 적응, 건강 등과 관련되며, 사람과 기관 그리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Sternberg et al. 2004). 창의적인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창의성은 융통성, 개방성, 자율성, 유머, 의지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보다 자신감 있게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고(Runco & Richards 1998)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입하며 일상의 기쁨을 즐기고 누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sikszentmihalyi 1990). 또한 대학생의 경

우, 창의성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Lee 2005) 심리사회적 적응능력이 높으며(Chung 2003) 스트레스를 덜 받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2007).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일상적 창의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해 이해를 잘 하고 관계 자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2008).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창의적인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도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한편, Mackinnon(1969)의 초기 연구 이후, 창의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성은 경험에의 개방성이다(Dollinger et al. 2004; George & Zhou 2001). 실제로 성격 5요인 모델에서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과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 가장 강력한 경험적 지지를 받는다(Feist 1998). Sternberg와 Lubart(1992)의 투자이론에서도 창의성 발현을 위한 여섯 가지 요소(지능, 지식, 인지양식, 성격, 동기, 환경적 맥락) 중 주요한 성격적 요소로 인내력, 모험, 새로운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성격유형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경험에의 개방성과 외향성은 창의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다(Furnham et al. 2008; Furnham & Bachtiara 2008). 즉,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험에의 개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외향성은 창의성 및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창의성이 개인의 성격특성(외향성과 경험에의 개방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외향성과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창의성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의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이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선정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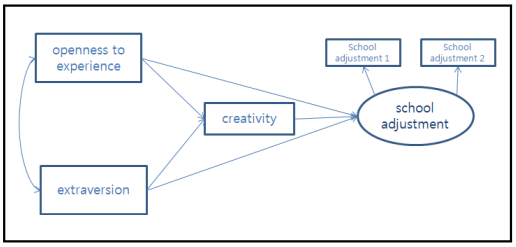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과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2. 대학생의 창의성은 대학생의 외향성과 경험에의 개방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 1곳, 수도권 소재 대학 3곳, 경남 지역 소재 대학 1곳에 위치한 5개 대학의 대학생 252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본 연구자와 타 학교 교수 등의 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총 배부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General characteristics			General characteristics		
Age	Male	108(42.8%)	Grade	Freshman	59(23.4%)
	Female	144(57.2%)		Junior	126(50.0%)
				Senoir	67(26.6%)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86(73.8%)	SES	High	30(11.9%)
				Middle	185(73.4%)
	Arts	66(26.2%)		Low	37(14.7%)

된 설문지는 290부였으며, 이 중 성실하지 못한 응답 38부를 제외한 총 25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은 24.88(*SD*=4.88)세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외향성

외향성은 성격의 5요인(성실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호감성) 중의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Yoo 등(1997)이 개발한 성격 5요인 검사의 하위요인인 외향성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입증하였다(Yoo et al. 1997). 성격 5요인 검사는 성실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호감성 등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향성은 타인과의 교제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중 외향성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축되지 않는다”,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편이다”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Cronbach's alpha는 .84이었다.

(2) 경험에의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성격의 5요인 중의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Yoo 등(1997)이 개발한 성격 5요인 검사의 하위요인인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입증하였다(Yoo et al. 1997). 경험에의 개방성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상식이나 어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 “깊은 생각에 잠길 때가 많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alpha는 .78이었다.

(3) 창의성 측정

대학생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Runco 등(2001)의 RIBS(Runco’s Ideational Behavioral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Runco et al. 2001). 창의적 행동척도는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이디어를 사용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높고 아이디어 생성 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잘 생각해낸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91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4)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Kim과 Kim(2008)의 학교행복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학교생활적응의 문항은 자기효능감, 대인관계-친구, 교사, 심리적 안정, 학습활동 즐거움과 환경만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생활적응척도는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강의시간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흥미롭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Cronbach’s a는 .89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예비조사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적절치 못한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본조사 실시에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체크하였다. 본조사는 2010년 6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졌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강의실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변인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이 때, 학교생활적응은 단일 측정변인에 대한 측정오차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무선으로 지표를 생성하는 방식(Random Splitting Method, Bandalos & Finney 2001)으로 지표변수를 생성해 잠재변인으로 모형에 투입하였다. 무선으로 지표를 생성하는 방식 중 짝수 번호 문항과 홀수번호 문항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즉, 학교생활적응 문항 중 홀수번호 문항은 학교생활적응 1에, 짝수번호 문항은 학교생활적응2 변수에 할당되었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 (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 ximation)를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는지와 관련하여 각 변수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이들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과 AMOS 1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에 앞서, 각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본 결과, 외향성의 평균은 3.19(SD=.43), 개방성은 3.19(SD=.52), 창의성은 3.13(SD=.51), 학교생활적응1은 3.78(SD=.75), 학교생활적응2는 3.67(SD=.72)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는 Table 2와 같다. 대학생의 외향성은 경험에의 개방성(r=.41, p<.001), 창의성(r=.34, p<.001), 학교생활적응(r=.32, p<.0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고, 창의성이 높으며, 학교생활적응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r=.67, p<.001), 학교생활적응(r=.3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성격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으며, 학교생활적응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창의성은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43, p<.001). 창의적인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he correlation among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creativity and school adjustment

	Extraversion	Openness to experience	Creativity	School adjustment1	School adjustment2
Extraversion	1	.41***	.34***	.31***	.32***
Openness to experience		1	.67***	.34***	.33***
Creativity			1	.42**	.45**

***p<.001

2.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창의성이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기본 모형을 추정하였다(Fig. 2 참조). 다음 단계에서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에서 학교생활적응으로의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창의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후, χ^2검증을 이용해 기본 모형과의 적합도 차이가 유의한지 비교하였다. 끝으로, 매개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Sobel (1982)의 공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본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기본모형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알아보았다. 외향성의 왜도는 -.03, 첨도는 -.05, 개방성의 왜도는 .09, 첨도는 -.02, 창의성의 왜도는 .29, 첨도는 .78, 학교생활적응1의 왜도는 -.25, 첨도는 .18, 학교생활적응2의 왜도는 .03, 왜도는 .30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시킴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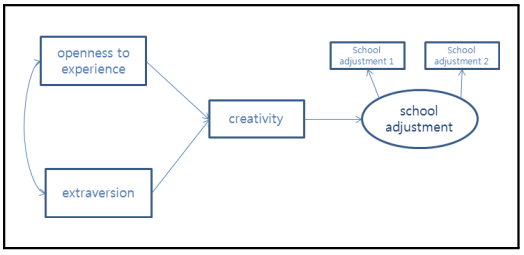

Fig. 2. Basic model(Alternative model)

먼저, 대학생의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이 창의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는 외향성에서 창의성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3, Fig. 3 참조). 즉,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창의성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으로 관련되었다. 기본 모형의 적합도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_{df=4}$=10.64, p=.03, TLI=.94, CFI=.98, RMSEA=.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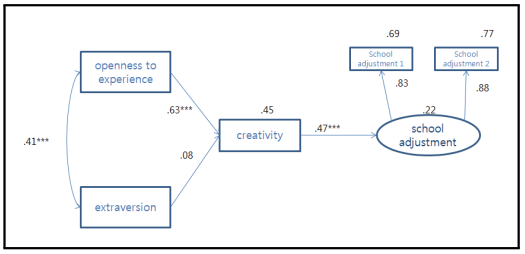

Fig. 3 Testing for basic model(Alternative model)

다음으로, 기본 모형에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에서 학교생활적응으로 가는 직접 경로를 추가하여 창의성을 부분매개 변인으로 하는 연구모형을 추정한 결과, 모형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chi^2_{df=2}$=.96, p=.08, TLI=1.02, CFI=1.00, RMSEA=.00). 부분매개모형에서는 대학생의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β=.63, p<.001)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쳤고(β=.38, p<.001), 외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β=.21, p<.01, Table 4, Fig 4 참조).

한편, χ^2 검증을 이용하여 이전 단계에 추정한 기본 모형과 연구모형 간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Delta\chi^2_{df=2}$=9.68, p<.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인 부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

Table 3. Regression weights of basic model(Alternative model)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S. E	C. R
Extraversion → creativity	.09	.08	.06	1.55
Openness to experience → creativity	.62***	.63***	.05	12.34
Creativity → school adjustment	.57***	.47***	.08	6.64
School adjustment→ school adjustment1	1.00	.83***		
School adjustment→ school adjustment2	1.11***	.88***	.12	8.53

***p<.001, *p<.05

Table 4. Regression weights of research model

	Estimate (Unstandardized)	Estimate (Standardized)	S. E	C. R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Extraversion → creativity	.09	.08	.06	1.55	.08	.08	
Openness to experience → creativity	.64***	.63***	.05	12.33	.64	.64	
Creativity → school adjustment	.46***	.38***	.10	4.43	.38	.38	
Extraversion → school adjustment	.30**	.21**	.10	.31	.24	.21	.03
Openness to experience → school adjustment	.03	.03	.09	3.01	.27	.03	.24
School adjustment1→ school adjustment	1.00***	.83***					
School adjustment2→ school adjustment	1.00***	.88***	.11	9.29			

***p<.001, **p<.01

하였다(Fig. 4 참조).

최종모형에서 창의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Sobel 검증[1]을 실시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으로 가는 경로와 매개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해야 하고, 간접효과가 유의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대학생의 경험에의 개방성이 창의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경험에의 개방성이 창의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Z는 4.32이므로 α=.05수준에서 임계치인 1.96보다 크게 나타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정리하면,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을 간접적으로만 예측하였다. 다시 말해, 대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게 나타났고, 높은 창의성은 다시 높은 학교생활적응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외향성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향적인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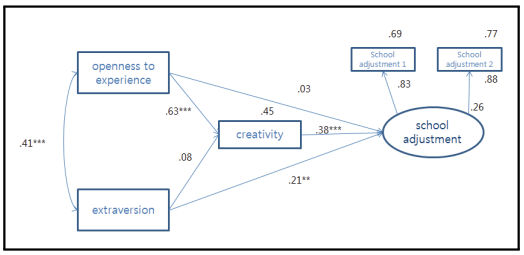

Fig. 4. Testing for research model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창의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외향성은 경험에의 개방성, 창의성, 학교생활적응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향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며,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높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적인 사람이 창의성이 높고(Furnham et al. 2008; Furnham & Bachtiar 2008),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이 높다(Ha et al. 2008)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

1) sobel 검증 공식은 다음과 같다

$$Z_{ab} = \frac{ab}{\sqrt{SE_a^2 SE_b^2 + b^2 SE_a^2 + a^2 SE_b^2}}$$

의적인 아이디어나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높고,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능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험에의 개방성이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Kim 2011; Silvia et al. 2009)와 경험에의 개방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인 관련이 있다(Ha et al. 2008)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이같은 결과를 살펴볼 때, 외향성과 경험에의 개방성과 같은 성격 특성은 대학생의 적응 능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성격 특성이다. 성격이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의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 변화하지 않는 특성도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나 지역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친구 혹은 선후배, 교수와 함께 즐겁게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게 될 때 대학생들의 외향성은 증진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동안 다양한 소모임이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경험들은 개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의 외향성과 경험에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봉사 활동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다양한 상황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상생활에서의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이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외향성 및 경험에의 개방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창의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대학생의 경험에의 개방성은 창의성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험에의 개방성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창의성이 높고, 대학생의 높은 창의성은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의성이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대학생의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의 창의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를 보다 자신감 있게 효율적으로 해결해나가고(Chung 2003; Runco & Richards 1998), 스트레스에 취약하지 않고 심리사회적 적응력이 뛰어나다(Chung 2007)는 점을 고려해볼 때,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학생들의 창의성 계발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실제 대학생들은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이 무엇인지, 창의성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g et al. 2010). 사회적으로 창의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창의성이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학업과 진로 또한 창의성과 관련이 깊다. 창의적인 대학생들일수록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달적 전환기에 놓인 대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예를 들면, 대학생들의 전공체험 프로그램, 취업관련 인턴십 등)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전공과 관련된 새로운 산출물들을 만들어보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창의성은 경험에의 개방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나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외향성은 학교생활적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외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창의성의 매개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향성은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으로 학교생

활에서의 적응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선행연구결과(Coplan et al. 2004; Ha et al. 2008; Lee 2003)와 일치하는 것으로, 대학생을 위한 학교생활적응능력 향상프로그램 개발 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창의성의 매개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외향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Furnham et al. 2008; Furnham & Bachtiara 2008)는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만큼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창의성 척도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창의성 척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불일치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창의성을 인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느냐, 사고과정으로 접근하느냐, 산출물로 보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척도를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도출된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를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 및 창의성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 외향성, 경험에의 개방성 및 창의성의 중요성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대학생의 경험에의 개방성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창의성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대학생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생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생활적응은 개인적 측면뿐 아니라 관계적 측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뿐 아니라 관계적 혹은 환경적 변인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뿐 아니라 학교환경 변인과 사회 환경 변인 등을 포함함으로써 대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격적 특성 및 창의성과 학교생활적응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초기 연구이다. 대학생의 성격 특성을 무엇으로 측정하느냐, 어떠한 하위요인을 포함하는가, 혹은 창의성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인성, 문제해결, 사고, 산출물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일예로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창의적 아이디어 산출 측면에서 고려했기 때문에 성격특성과 창의성 및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성에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격요인들 중 창의성 및 학교생활적응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변인 2가지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성격 특성과 창의성, 학교생활적응 간의 통합적인 관계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추후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척도를 통해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발달적 전환기에 놓인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Baker RW, Siryk B(1986) Exploratory intervention with a scale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 Counseling Psychology 33, 31-38.

Bandalos DL, Finney SJ(2001) Item parceling issu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A. Marcoulides & R. E. Shuma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Development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Barron F(1988) Putting creativity to work. In R. 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Contemporary Psychological Perspectiv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ng HS(1999) Adolescent Psychology. Seoul: Hakjisa.

Choi IS, Kim CH(2004) The effects of sex-role identity upon school adjustment behavior. Korean J Educ Psychology 18, 132-143.

Chung EI(2003) Relationships of everyday creativity

to psychological and social adjustment. J Res Educ 18, 103-120.

Chung EI(2007) The effect of stress and everyday creativity of college students on career decision-making. Korean J Educ Methodology Stud 19(2), 143-162.

Chung EI(2008) Relationships of everyday creativity to love attitude, mutual understanding, and relational satisfaction. J Res Educ 32, 95-117.

Chung OB, Chung SH, Lim JH, Kim KE, Park YJ(2011) An investigation of the creativity as perceived by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J Human Ecology 20(1), 39-55.

Coplan RJ, Prakash K, O'Neil K, Armer M(2004) Do you 'want' to play? Distinguishing between conflicted-shyness and social disinterest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0, 244-258.

Csikszentmihalyi M(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Y: Harper & Row.

Dollinger SJ, Urban KK, James TA(2004). Creativity and openness: Further validation of two creative product measures. Creativity Res J 16, 35-47.

Feist GJ(1998) A meta-analysis of personality in scientific and artistic creativ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 2, 290-299.

Furnham A, Bachtiar V(2008)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as predictors of creat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5(7), 613-617.

Furnham A, Batey M, Anand, K, Manfield J(2008) Personality, hypomania, intelligence and creat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060-1069.

Gazelle H, Ladd GW(2003) Anxious solitude and peer exclusion: A diathesis-stress model of internalizing trajectories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4, 257-278.

George JM, Zhou J(2001) Understanding when bad moods foster creativity and good ones don't: The role of context and clarity of feelings. J Applied Psychology 87, 687-97.

Goldberg LR(1992) The development of markers of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4, 26-42.

Gonzales NA, Tein J, Sandler IN, Friedman RJ(2001) On the limits of coping: Interaction between stress and coping for inner-city adolescents. J Adolescent Res 16, 372-395.

Ha DH, Hwang HI, Nam SI(2008) The development of Big 5 personality inventory and its criterion-related validity on school grade, school adaptation, and career selection. Korean J Educ Psychology 22(3), 609-629.

Kim KE(2011) Emotions, openness to experience, self-efficacy and creativity: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Korean J Human Development, 18 (1), 1-18.

Kim KH, Kwon HJ, Choi MH(2004)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sensation seeking and adjustment to school in the adolescents. J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 13(4), 476-486.

Kim JB, Kim TE(200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school happiness scale. Korean J Educ Psychology 22(1), 259-279.

Ladd GW, Kochenderfer BJ, Coleman C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Laidra K, Pullman H, Allik J(2007)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as predictors of academic achievement: A cross-sectional study from elementary to secondary school. J Personality & Individual Differences 42(3), 441-451.

Lazarus RS,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Lee JK(2005) The relationship among creativity, work prefer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for the students in the university. Korean J Educ Psychology 19(2), 413-432.

Lee OJ(2003) Eysenck's personality dimensions and stress coping styles as predictors of school adjustment i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7(3), 77-85.

Lounsbury JW, Sundstrom E, Loveland JM, Gibson LW(2003) Intelligenc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work drive as predictors of course grad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5, 1231-1239.

MacKinnon DW(1969) Personality inventory correlates of creativity among architects. J Applied Psychology 53, 322-326.

McCrae RR, Costa PT(1997) Conceptions and Correlates of Openness to Experience. In Hogan R, Johnson JA, Briggs SR (Eds.), Handbook of Personality Psychology (pp. 825- 847). Orlando, FL: Academic Press.

Runco MA, Richards R(1998) Eminent Creativity, Everyday Creativity, and Health. Greenwich, CT: Ablex. Simonton.

Runco M.A, Plucker JA, Lim W(2001)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integrity of a measure of ideational behavior. Creativity Research J 13, 393-400.

Shaffer LF, Shoben EJ(1956) The Psychology of Adjustment. Boston: Houghton Mifflin.

Silvia PJ, Nusbaum EC, Berg C, Martin C, O'Connor A(2009) Openness to experience, plasticity, and creativity: Exploring lower-order, higher-order, and interactive effects. J Res Personality 43, 1087-

1090.

Sobel ME(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s. In S. Leinhar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2 (pp.290-312). San Francisco: Jossey-Bass.

Spencer MB(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1), 43-45.

Sternberg RJ, Lubart TI(1992) Buy low and sell high: An investment approach to creativ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 28-57.

Sternberg RJ, Grigorenko EL, Singer JL(2004) Creativity: The Psychology of Creative Potential and Realiz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lrath M, Torgersen S, Alnaes R(1995) Personality as longterm predictor of cop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 117-125.

Yoo TY, Kim MU, Lee DH(1997) The Big-Five personality test : Development and criterion -related validation. Korean J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0(1), 85-102.